

한살림운동과 공생의 논리

대담자 — 김종철

오늘날 한살림공동체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이 운동은 원래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 소규모 유기농산물 직거래조직으로서 출발하였지만, 불과 십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전국의 주요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공동체적 연대의 그물을 다양하게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한살림운동은 주로 유기적인 도농간 농산물직거래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운영중에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려운 대로 그 발전의 잠재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공동체운동이 종래의 주류 사회변혁운동에 비교하여 특히 새로운 점은 그것이 철저히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던 권력추구적, 배타적 경쟁의 원리를 넘어서서 어디까지나 자율적이며 협동적인 공생의 질서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생의 논리를 지금 당장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보아왔던 경쟁적 권력투쟁과는 매우 거리가 먼 방식, 즉 각자의 비근한 일상적 삶속에 자치와 협동의 공간을 가능한 한 확보

이것은 녹색평론 발행·편집인인 김종철 교수가 《녹색평론》 창간 1주년 기념호(1992년 11-12월호)를 위해 쓴 글이다.

하고 넓혀가려는 대안적 생활문화운동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치적 생활협동운동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처음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공동체의 파괴와 노동소외와 착취관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인간정신이 살아있는 한 다양한 형태로 끈질기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가장 큰 즐거가 산업노동자의 혁명세력화를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전략으로 표현되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러한 주요 흐름과 나란히 또한 생활협동운동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시장기구로부터 자유로운 자치적 삶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되풀이하여 있어왔던 것이다.

오늘날 이른바 현실사회주의의 패퇴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의 목표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자치적 생활협동운동은 다시금 진지한 조명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밖에는 길이 없다면서 체념하거나 구태의연한 계급투쟁 논리에 대한 충성을 새삼스럽게 다짐하는 것으로써는 활로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자본주의 시장논리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세계의 큰 부분에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비시장 논리라는 것, 그리고 이른바 산업문명사회 내부에서도 자치적 삶의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코 독재하의 엄혹한 환경에서 한 시골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어 드디어 모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서 성장하여 오늘날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산업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들로만 하나의 자치도시를 형성하게 된 스페인의 몬드라곤공동체가 갈수록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몬드라곤의 경우를 예외적인 성공사례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몬드라곤 못지않은 성공을 위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아직도 풍부하게 세계의 많은 곳에 남아있다는 믿음을 우리

는 가질 필요가 있다. 몬드라곤의 역사를 보면, 객관적으로 주어진 악조건을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희생과 상상력이 풍부한 마음, 다시 말해서 꺾이지 않는 인간정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몬드라곤의 경우를 포함해서 최근까지의 생활협동운동은 대체로 생태학적 전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몬드라곤의 경우는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어떤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했다고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논리를 철저히 존중하는 틀 안에서 경쟁능력을 높여왔고, 이제는 로봇까지 생산해내는 기술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지구의 생명지원체계 자체가 파손 직전에 도달한 오늘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몬드라곤 방식의 생산공동체운동이 과연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래 생활협동운동은 산업노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변혁논리와는 대조적으로 인간 생존의 기초로서 땅이나 농업문제에 유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전통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생태학적 관심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낭비와 파괴를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기구로부터 가능한 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자치적 ‘해방구’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생활협동운동이라고 할 때, 이러한 독립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생태학적 건강을 되찾으려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시장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이윤추구밖에 아무런 고려가 없는 기업에 의해서 상품이라는 형태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농업생산물인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생활협동운동은 인간 생활의 필수품들을 그것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유용성의 견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틀로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농산물직거래를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살림운동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기농산물을 장려한다는 데 그 선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농업문제를 보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무어니무어니 해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땅이 사라지는

것과 땅이 오염되어가는 문제일 것이다. 토지소유관계가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막이 된 땅, 독성물질로 병든 땅, 그리하여 농업이 불가능하게 된 땅을 가지고 그 소유관계를 말해보았자 의미없는 일이다. 실제로 머지않아 농업이 전면적으로 포기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물을 기르고, 인간의 삶을 지켜주는 근원적인 바탕인 땅을 없애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할 수 없다면 마땅히 지금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유기자연농업을 되살리는 노력일 것이다. 이것은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는 자구적인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대로 가면 파국에 직면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산업기술문명의 진로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는 어차피 농적(農的) 문화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모두 실지로 농사를 짓든 아니하든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라는 유한체계속에서 생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려면, 재생순환이라는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활개를 쳐온 것은 개발 이데올로기였다. 이것은 각각의 사회에 고유한 토착적 풍토와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미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공업화를 통한 발전전략이 패권적인 지배를 누려왔고, 여기에 따라 농업도 오로지 생산성의 증대라는 한가지 목표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도록 강제된 결과 거의 모든 농토는 엄청난 화학약품과 기계의 적용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공업우선 정책이 수십년이 넘게 끊임없이 강화되는 동안 농촌인구가 도시로 거의 다 빠져나가고 마을에 사람이 없는 사태가 되었다. 사람이 없으니까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그

러면 그럴수록 땅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되어 간다는 악순환이 깊어지는 것이다.

아마도 한살림운동이 현재 벌이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와 같은 활동은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공해세상에서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남아 보고자 하는 자구적인 소시민운동쯤으로 보일지 모른다. 혹은, 이 운동이 급속도로 와해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살아있는 땅과 마을을 새로운 형태로 돌이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의 하나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무슨 현실적인 효과가 있겠느냐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존의 바탕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을 ‘진보’라고 여기는 이 어리석음과 무책임의 소용돌이속에서 지배적인 습관과 타성을 거부하고 사람살이의 올바른 방식으로 ‘흙의 문화’의 재생을 위해 누군가가 헌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지난 일년간 《녹색평론》이 해보려고 했던 작업이 어떤 것이었든간에 그 작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화의 실마리를 실제로 우리의 현실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물론 산업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반 일리치가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체계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본질적으로 무책임한 반생태적 거대기술은 책임있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것인데,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면, 대체에너지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토착전통사회에서보다 일인당 평균 백배 이상이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사회의 낭비적 구조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기술산업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팽배한 사회에

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일을 계속할 필요는 있다. 지금 한살림운동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나 시민조직은 몇해 사이에 놀라운 속도로 증가되었다. 각기 다양한 이념과 방향 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도농직거래, 혹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에 속한다고 보는 인식의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한살림이라는 특정 형태의 협동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이름이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속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일 것이다. 우리가 한살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여러 움직임들 전체를 어느 정도 그것이 대변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살림운동의 연원을 살피고, 그것이 우리의 전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좀더 깊이있게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운동을 처음 구상하고 제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원주의 장일순 선생을 방문하여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는 일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장일순 선생은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예가이자 사회운동가라는 막연한 이름으로 소개되어왔고, 흔히는 시인 김지하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져왔다. 근년에 이른바 생명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어온 《밥》과 《남녘땅 뱃노래》의 저자가 보여준 어떤 창조적 사색의 핵심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학사상, 그중에서도 특히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월 선생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장일순 선생과의 대화가 결정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우리들 대부분은 간디의 비폭력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체질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친근한 해월 선생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상

태로 지내온 것이 사실인데, 근년에 와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동학이나 해월 선생의 참다운 모습에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로 장일순 선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학사상을 단지 잊혀졌던 지식의 복원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삶의 실천적 원리로서 살려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장일순 선생의 커다란 공로가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상이건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려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건전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정신적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일순 선생은 동학의 한울님사상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계의 모든 이웃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증하는 생명사상으로 읽어내고, 이것을 현실의 사회생활에 적용하여 한살림공동체운동으로 풀어내었다.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실질적인 녹색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이 원주에서 처음 실천에 옮겨졌던 것이다.

원주라는 곳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나라 녹색운동의 메카라고 할 만한 곳인 듯싶다. 한살림운동이 시도되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70년대 초부터 원주를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살림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탁운동의 일부가 발전되어 나온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신탁운동도 역시 중앙집중적 권력의 통제 바깥에서 민중이 스스로 생활을 상부상조의 방법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자치적 생활협동운동이다. 원주에서 들은 설명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이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70년대 초 강원도 태백에서 경기도 여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했던 물난리로 인한 수재 이재민의 구호문제와 동시에 당시의 고질이었던 광산촌 및 농촌의 고리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였다고 한다. 그때도 역시 이 일은 천주교 원주교구 산하에서 장일순 선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창시절과 5·16후 반독재투쟁 경력으로 인해 3년간 춘천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을 빼고는 원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원주토박이 장선생은 세간에서 흔히 “하는 일 없이 온갖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선생은 양(陽)이 아니라 음(陰)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권력예의 의지와 경쟁의 논리에 의거하여 배타적으로 하는 사회운동방식으로는 이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장 선생은 근년에 되풀이하여 얘기해왔다.

9월 25일, 밤사이에 비가 많이 내리고 맑게 갠 가을날, 원주의 봉산동으로 장일순 선생을 찾아뵈었다. 작년에 위암수술을 받고 지금 투병중인 선생은 그동안 상당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다. 얼핏 짐작으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자신이 괴롭다고 해서 마다하지 않으실 것이 틀림없는데,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어거지로 말씀을 듣겠다고 온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느낌이었다. 선생은 오히려 《녹색평론》에 대한 여러가지 친절할 말씀으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선생과 함께 시내로 나와 선생의 한 제자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들고, 원주의 <맑음신탁> 건물의 이층에 있는 한 방에서 거의 두시간이나 넘게 장일순 선생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맑음신탁>의 운영과 설립배경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화는 수재민 긴급구호대책으로 출발한 소비조합이라든지 고리채 해결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하는 운동들이 광산촌이나 농촌으로 들어간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로 흘러갔다.

“물론 살아있지요. 폐광지대나 이농이 심한 지역에서는 죽었지만, 주민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가 촌까지 파급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요. 그러나 긴급구호문제도 있고, 또 오래 자기네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협업, 협동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사업이 안돼도 좋으니까 제대로 해보자는 방향을 정했어요. 문제는 농민, 노동자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경제체제하에서는 사람하고 사업을 온전히 같이 살리기란 어려운 거라. 그러면 사람하고 돈 중에서, 돈은 깨져도 좋지만 사람은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 거지요. 사람만 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걸 체득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십여년 이상을 끌어왔죠.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농촌개발정책으로 소위 새마을금고를 채택하는데, 그게 신탁을 그대로 옮겨간 것이었지요. 새마을운동은 박정권 유지를 위한 기만책인데, 어쨌든 새마을금고를 하면서 장부처리고 운영방식이고 전부 신탁을 모방했거든. 신탁은 없애려고 탄압을 했지만, 결국 깨질 못하고 박씨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와 신탁은 본질에서 다른데, 새마을금고가 하향식인데 반해 신탁은 철저히 상향식이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왜정때 몇번 시도했지만 일본인들이 다 깨버렸지 않았어요? 또, 이북에서 하는 소비조합운동이란 것도 당조직을 통해서 하는 하향식이죠. 정말 자발적인 상향식 조직은 내가 알기로는 한반도내에서는 이 신탁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러나 자발적인 상향식 협동조합운동이라도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들이지만 사무직의 비대화로 인해 조합원이 소외된다는 것과 같은 일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통해서 빚을 해결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애착을 버릴 수야 없지요. 또, 신용기관이라고 하지만, 은행과는 다르니까, 은행에서는 고객이지만, 신탁에서는 조합원이거든. 그리고 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은 기업으로 가지만, 신탁 돈은 계속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활용되는 거고.”

말은 신탁이지만 오늘날 단순한 돈장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신용협동조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리를 함께 한 <밤음신탁>의 박준길 상무의 설명으로는 적어도 원주의 신탁에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생활을 매개로 한 인간적 접촉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직원들이 매일 일정한 담당지역내의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상당 노릇도 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무슨 조직이든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인데, 생활자치운동에 있어서도 이것은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서울의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이 조합원 규모가 6,000세대를 넘고, 기구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터이기에 이 점에 관해 장일순 선생의 의견을 여쭙어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박재일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죠. 작을 때는 비교적 제대로 되는데, 숫자가 많을 때는 거기 수반되는 관리능력이 문제가 되고, 관리운영의 모드 수반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운동권에서 일하던 체질로는 어렵지.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진도 능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뒷바라지해주는 방계지원조직, 예컨대 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연구그룹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지요. 조합 바깥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그룹들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 전에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별도로 일종의 연구그룹으로서 한살림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좋은 책도 내고 했는데, 그것이 그동안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해왔다면 이런 때 요긴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일을 해보니까 기복이 있어요. 내 얘기는 성급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마음 바쳐서 꾸준하게 가자. 그러나 사람 생활이란 게 각자 생활영역이 다르면서 이걸 공동으로 하자니까 일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도 있지요.”

— 저도 천규석 선생 옆에서 대구에서 한살림 일에 조금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으면 이걸 따라 뜻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들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공간이 어떤 식으로든 좀 마련되어야 하겠는데 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점도 있고, 또 지금 공급일을 맡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무엇인가 일하는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좀 시간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든 한살림이 생긴 이후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움직임이 전국에 135개 정도나 되었다고 해요. 도농직거래든 어떠한 형태든 나름대로 말이지요. 10년 동안 그만큼 커가고 있는 거지요.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옆으로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잘하는 것은 둘째 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신희도 61년도에 부산에서 처음 생겨 가지고 이젠 전국에 조합원이 200만이 넘었는데, 그러고 보면 법인단체로는 막강한 힘이 된 거지. 앞으로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될 테지. 지금은 우리가 외롭고 초라하지만 고삐를 쥐고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하고 제대로 사는 길을 비춰주면서 말이지.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거라고 봐요. 두고 보시오. 서기 2000년쯤 되면 ‘어느새 이게 이렇게 변모했어’라는 말이 나올 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몸을 던지는 사람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면 최소 한은 조반석죽이라도 제 식구 굶기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 식구가 굶으면 제가 굶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지러워서 배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취직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의 일정한 부분을 이 운동에 넣자는 얘가지.

유신독재 반대운동할 적에 연세대 나온 한 젊은이가 와 가지고, ‘선생님 전부 이렇게 정의를 위해 싸우고 감옥에 가는데 전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죄짓는 것 같아요’ 하기에,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일이나 하라고 했지. ‘죄는 무슨 죄, 월급 타면 감옥에 간 사람 옥바라지 좀 하면 되지 않겠어? 일선이 있다면 후방이 있는 법인데, 후방 없는 일선이 있는가? 자넨 후방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닌가’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든 지금 내가 보기엔 김교수가 《녹색평론》 하면서 요새 심정이 아마 강태공이 낚시 내려뜨리고 있는 거와 같을 거야. 그날이 오기까지, 그런 걸 거라구.”

— 별말씀을 다….

“시간이 좀 갈 거요. 시간과 잘 싸워야지.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거는 결국 생명운동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생명이란 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있던 말이지. 그 덕에 모든 것이 살아가니까. 유교가 중국에서 일단 참패를 본 게 무엇 때문일까. 영성이 빠졌기 때문에. 공자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 불교가 들어와서 영성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라는 게 전부가 눈으로 보이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을 계산하다가 보니까 이 지경으로 되었던 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운동의 핵은 전일성인데, 전(全)이란 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속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같은 서투른 사람한테 ‘생명이 뭐냐’ 하면 ‘몰라’ 하는 게 정답이라구. 어떻게 말로 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배맛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거지. 각자가 소화시켜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 한단계 한단계씩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노는 걸 보니까 신선하다. 저렇게 사는 게 참 편하고 좋아 보인다. 인간적으로 즐겁게 살고 뭔지 모르게 숨통이 트이더라. 이런 식으로 찬동하고 따라오도록 형성해가야지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소? 하기는,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하더라도 얘기는 해야겠지. 어차피 사람은 뒤는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각자는 제 나름으로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가다 보면 말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답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꽤 풀려가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지요.”

— 결국 늘 성급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성급하게 생각해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지. 그럴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잡아챘다고 될 일도 아닌데 말이죠.”

— 아까 실험활동에서 중요한 게 인간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실은 한살림에서도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다섯 가구로 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빼면 한살림도 그냥 단순 직거래조직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동아리를 엮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도 그렇지만, 이웃간의 심리적인 벽이 엄청나게 두터운데, 한살림에서 이걸 고집한단 말이지요. 물론 이것은 공급체계를 원활하게 할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고사는 일이 협동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조금이라도 체득하자는 뜻으로 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런 소공동체를 엮지 못하거나 이런 것을 아예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한살림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럴 게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참여시켜서 유기농산물 소비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농촌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는 지금 대구 한살림에서처럼 좀 까다롭게 하면서 입회시키는 게 좋을 거요. 왜냐하면 양적으로 확대될수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뿌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냥 양으로만 확대되었을 때는 전부 이해관계로만 따지기가 쉽거든. 그렇게 되면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자는 식으로만 되는데, 그런 정도의 바탕 가지고는 이 운동을 해나갈 수는 없지요. 근원적으로 전체가 생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돌아가는, 정신 육체 모든 것이 전인적인 조화속에서 이 운동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다른 생활은 그대로 두고 먹는 것만 좋은 것 먹자고 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도 그것을 지키는 책이 있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순리란 말이지. 양적으로는 언젠가는 자연히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간간하게 하는 것이 옳고, 그게 강건한 뿌리가 되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구의 천규석 선생이나 김선생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언젠가는 도시사람, 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가야 할 겁니다. 요새 이농현상으로 비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가서 생활을 하고

농사도 짓고 해보는 거지요. 형편이 되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교육문제는 중학교까지는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종래 교육으로는 계속 우수가 위주니까 전일성의 입장에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뜻을 먹고 간 사람들로 하나의 농촌마을이 형성된다면 저녁에 몇시간이라도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광주의 광록회 같은 곳에서는 유치원 아이들 교육부터 하고 있어요. 학부모도 교육시키고, 아이들도 생태계라든가 삶이 무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뿌리에 박힌다는 거지요. 전국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경험들을 서로 만나 얘기하고, 옆으로 자꾸 나누어가면 많은 변화가 점차적으로 생기게 될 거라고 봐요.

귀농운동 같은 걸 통해서 농촌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것 나름으로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가령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은 그 생산비를 보장해주겠다는 소비형태가 자치적으로 형성되면, 중학교과정이 아니라 대학까지도 못하라는 법도 없겠지. 내 생각에는 지금 도시의 빈민들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처럼 농사지어보아야 살 수 없다라든가 농촌이 지겹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농사도 제대로 살고, 실로 풍부한 인간적 생활과 자연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을 적에는 물량이나 편의,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우위적인 잣대로만 성장해온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근원적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생활이 보편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 그런데, 지금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농대 교수들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기농업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유기농으로는 소출이 적어지는데, 인구를 다 먹여살릴 수 없을 거라면서요. 오염된 쌀이라도 양만 채우면 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그 양반들의 안목은 이른바 현대과학의 논리에 빠져서 물량에 치중하고 있지요. 그래서 땅이 현실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생태계가 파괴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학농업을 할 때보다 유기농을 하면 작물 자신은 더 실패지고, 그러니까 나락이면 나락, 야채면 야채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설사 섭취량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다르단 말씀이야. 또 한가지는 유기농에는 풍흉에 큰 변화가 없이 늘 일정 수준의 수확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 총계를 내면 유기자연농이 화학농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것이지요.”

— 예, 그건 틀림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농토오염이라든지, 토양침식 문제 같은 걸 생각하고, 또 이런 추세가 너무나 견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걸 보면, 맥이 다 빠지고 비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 나름의 사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내일 망한다 해도 그냥 밀고 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 선생님, 이쯤에서 동학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동학사상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해월 선생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운 선생보다 해월 선생을 더 많이 언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해월 선생께서는 37년이란 세월을 언제나 농민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시는 동안 남녀공히, 아이들까지도 지극히 섬기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지요. 요새 가이아 얘기를 하지만 해월 선생은 땅에도 침을 뱉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부모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같다고. 그래서 나막신을 신고 딱딱 소리내는 것을 보고 해월 선생은 놀래시잖아요. 좀 사뿐사뿐 조용히 걷지, 나막신을 가지고 딱딱 소리나게 걸으면 부모님을 상하게 한대라는 생각이셨죠. 그분은 미물에서부터 근원에 이르기

까지 수미일관한 속에서 사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 염송하시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 다 하신 거지요. 그 이상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향아설위(向我設位)’라는 거 있잖소. 그것은 종래의 모든 종교에 대한 대혁명이죠. 늘 저쪽에다 목적을 설정해 놓고 대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바라면서 벽에다 신위(神位)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즉, 조상도 내 안에 있고 모든 시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제사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한울님을 향해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밥이 하늘 이라’는 말씀을 수도도 하셨지만 해월이 일체 생활속에서 몸소 실천하신 점이라든지 ….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37년 동안에 겪은 노고가 손병희 선생으로 하여금 동학을 이끌고 가게 하는 모태가 되잖아요. 바로 그 동학이 없었더라면 3·1만세운동은 아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만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 겨레가 모범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일러주신 분이 그분이지요. 우리 겨레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셨지요. 놀리고 억압받던 이 한반도 100년의 역사속에서 그 이상 거룩한 모범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향심이 많았지요.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거룩한 모범이지만, 해월 선생은 바로 우리 지척에서 삶의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그래서 이 겨레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하나의 표정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참 세상 이치는 묘해서, 그런 일생의 결과가 3·1만세나 중국의 혁명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그런 기운의 변화속에서 인도의 간디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나는 보지요. 간디와 해월

을 바로 비교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마는 비폭력이나 비협력에 대해서도 아주 근원적으로 해월께서 다 말해주셨거든. 원래 동학의 면모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 협력하지 않고, 매사에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우주가 전부 일심동체라는 것을 그분은 몸으로써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해월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죠.”

— 해월 선생에 대한 종래 우리 역사학계의 입장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는 거의 주목도 안되어왔고, 대개는 동학혁명 당시의 남접과 북접과의 관계에서 해월 선생 쪽의 입장이 전투적인 게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데, 주로 그 점 때문에 비판받는 듯합니다만.

“어차피 여태까지의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이 갖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해월 선생의 삶을 투사해보면 전혀 맞질 않아요. 역사학도들의 입장으로는 해월 선생의 삶에서 거부감이 왔겠죠. 그런데 종래 사회과학의 잣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사정이 달라지겠죠. 전 우주가 하나의 생태적인 관계에 있다든가 하나의 생명관계에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자꾸 증명이 되고 고증이 되는 과정에서 해월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걸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회과학도들이나 오늘날 교육을 받은 대다수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새로운 현대 물리학이나 우주과학이나 현대 생물학의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해월의 말씀은 그냥 전부가 경탄해 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땅에 이런 선각이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 실은 어떤 지식을 쌓는 일보다도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가 아닐까요. 시각이 안되어 있으면, 가령 ‘향아설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요즘 지식인들의 습관으로는 ‘아(我)’를 잘못 읽기가 십상이겠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김선생 말씀대로 그 아(我)란 너-나가 따로 없는 그런 나를 말하지요. 석가모니의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씀 있잖아요.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속에 배태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 그것을 얘기하신 거죠. 해

월 선생 말씀도 그거죠. 전 우주에 편재해 있는 생명, 한울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절하느냐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또, 성서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을 들먹이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어디 따로 있느냐, 모두가 내 형제자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는 자로다.’ 이러니까 그 무리들이 ‘나이가 이제 서른살된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따지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영원하신 생명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니까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는 것일 수밖에. 해월이 말하는 ‘향아 설위’에서 나(我)는 현상적인 나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는 한울님 아(我)란 말이야.”

— 해월 선생께서 사용하시는 표현방법을 보면 굉장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식천(以天食天)’이란 말도 그렇고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말씀이지. 천주교에서는 의식을 딱 하고서는 축성을 한 다음에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건 풀이로 보아서 한참 모자라는 거지. 해월 이야기로는 하늘이 하늘을 기르는 거니까 뭐 기도 드리고 말고도 없이, 이미 하늘이야. 그런데,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락 하나가 안되잖아요. 나락이 작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지. 그러니 생명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소개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크고 작은 것을 초월해야 하고, 선악을 초월해야 하겠지.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은 이미 몸이 찌들어서 이게 잘 안된다구.

악과 선의 관계는 사실은 표리관계인데,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맨날 일등만 하라고 하고 그 이하는 무시하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육이고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건데. 풀 하나도 우주 전체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바에야 풀 하나에도 섬김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풀이 사람을 반기게 되고 할 텐데 말이야. 식물도 애정을

가지고 귀하게 여겼을 때는 즐거워한다고 하거든. 그런 걸 알면 선악 애기는 할 필요도 없지. 저 놈 나쁜 놈이야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아 자네 얼마나 고달픈가 하고 받아들이면 스스로 화냈던 거, 욕심냈던 거, 다 풀리거든. 그래서 둘이 다 좋아진단 말이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요새 일등만 하라고 하다가 인간사회에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공해를 엄청나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일등만 하면 다른 건 다 지배해도 좋고, 가져도 좋은 것으로 알고, 남을 하대해도 되는 걸로 알고 말이지. 이기면 다 된다는 것이지. 이기긴 누구를 이긴다는 것인지. 우리 과제는 이긴다 진다는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봐요. 현재까지는 앞엿 놈을 전부 때려잡아서 먹어야 된다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

— 그렇게 말하면, 우리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같이 해야지 우리만 그러면 손해보고, 죽는 게 아니냐고요.(웃음)

“그것에 지친 거라, 김교수가.(웃음) 콩물에다가 간수를 넣으면 바로 두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뭉게뭉게 뭉게뭉게 하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일을 했소 하는 소리를 자꾸 떠들면 안되는 거지. 그날 그날 당하면서 조용히 가자는 거지. 그래서 강증산 같은 이는 쫓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엮으면 기성 기득권 문화속에서 다친다는 얘기지. 밑으로 옆으로 자꾸 퍼져 나가야지. 요새 운동권이 어떤가. 몇만 모여도 성명 내고 깃발 올리고 말이지. 그러니 되지를 않는 거지.

노자가 얘기했지. 인간들의 사회속에서는 없는 놈이 있는 놈들을 섬기느라고 불일을 제대로 못 보는데, 하늘세계에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섬긴다고. 없는 것을 보충하고, 조화를 가져온다고. 그런데 인간사회에서는 많이 가진 놈을 또 섬기니, 이걸 개탄해서 나는 재주있는 사람이나 현인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재물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 되면 세상이 전부 욕심에 빠진단 말이지. 일등이 잘난 거라고 하면 전부 일등만 하려고 덤벼드니까 결

국 미쳐 돌아가잖아요. 또, 귀하다고 전부 다 그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도둑이 생기고, 그러니 나는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인데, 결국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지. 생명은 조화가 있는 거라고.”

— 선생님 빨리 쾌유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많이 하셔서 고단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준길씨의 설명으로는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는 편이 선생님의 건강에 도리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작년에 처음 위암진단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으시고 담담히 받아들여시던 일을 전하면서 선생님의 쾌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박준길씨는 말했다. 나는 작년 장일순 선생께서 입원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척 편치 않았다.)

—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같은 분에게 어째서 그런 병이 왔는지 ….

“내가 속으로는 사실은 엉터리라고 …. 병원에 입원해서 드러눕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번사스러운 일에 빠져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데 말이지. 그런데 병원 침상에 누웠다 이렇게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순간 평화와 환희가 지나가더라구. 아까 얘기했지만, 나락 한알에 우주가 함께 하신다고, 이천식천이라고 그러셨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 한울이 한울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지. 엄청난 영광의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고 입맛이 있네 없네, 맛네 안 맛네 이런 걸 계산하고 있단 말이야.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거룩하고 영광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뭔가. 천국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도 자꾸 그걸 버리고 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병도 생기거든.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병이 생기지 않았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굉장히 철면피여.”(웃음)

걸어서 가시겠다는 선생님을 자동차로 댁까지 모셔다드리고, 신험의 박상무와 덕수칼국수 주인 이궁래씨는 해월 선생을 기리는 비석이 서있는 원주군 호저면 솔골까지 우리를 안내해주었다. 맑은 가을 오후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지만 주변에 벼들이 한창 익어가고 있었다. 여기가 1898년 4월(음) 오랜 세월 도피와 은신을 거듭하며 민중을 가르쳤던 해월 선생이 마침내 경군(京軍)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간 곳이다. 찾길가에 큰 돌이 놓여있고 그 위에 검은 돌 앞면에 눈에 익은 장일순 선생의 필치로 “모든 이웃들의 벗인 최보따리 선생을 기리며”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밑돌에는 해월 선생 자신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天地는 父母요 父母는 天地니 天地父母는 一體也니라.”